특집/국제곡물 수급동향과 정책과제

최근 곡물수급동향과 해외농업투자 지원

최 용 규*

1. 최근 국제곡물 수급동향과 전망
2. 해외 농업투자 지원방안
참고1 : 남미지역 해외농장 실태
참고2 : 민간업체 해외농업자원 개발현황

1. 최근 국제곡물 수급동향과 전망

1.1. 최근 국제곡물가격 동향과 특징

1.1.1. 가격 및 수급동향

최근의 국제곡물시세는 지난 1988-89년의 높은 수준이래 17~18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년 5월 현재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밀의 가격은 28%가 상승한 톤당 $206이며, 옥수수의 경우는 82%나 상승한 톤당 $202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1 참조).

수급측면을 살펴보면, 공급측면에서는 세계적인 기상재해로 인해 곡물의 생산이 감소한 반면, 수요측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의 곡물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시장기조로 인해 세계의 소비량 대비 곡물재고 수준은 1995년의 17%에서 1996년에는 1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2 참조).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곡물시장은 부족과 과잉현상이 13~16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곡물재고는 최저수준을 기록했던 1973/74곡물년도의 재고수준인 16%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곡물별 최근동향

	기말재고(1995/1996, 백만톤)	가격(1996.5, $/톤)
밀	98.6(△15.0%), 재고율 18%	206(28.0%↑)
콩	16.6(△27.2%), 재고율 13%	309(39.2%↑)
옥 수 수	56.0(△38.9%), 재고율 10%	202(82.0%↑)

* ( )내는 전년동기 대비 변화율

* 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장

표 2 세계 곡물가격 및 재고추이

(가격:$/톤 FOB, 재고:백만톤, 재고율:%)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5
밀	116	113	147	172	131	136	165	140	146	174	206
옥수수	90	77	108	112	109	108	104	102	106	119	202
콩	199	204	287	259	228	221	221	240	240	235	309
곡물재고	300	414	360	265	241	280	268	308	263	247	183
재고율	30.2	31.6	26.9	20.2	17.9	20.4	19.7	22.2	18.9	17.7	13.3

* 자료: USDA, FAS, Grain : World Markets and Trade for Grains

이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세계의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최저 수준의 재고율인 17~18%(FAO)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1.1.2.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1980년대 이후 세계곡물가격은 1989년을 정점으로 하여 하락하다가 199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곡물재고량의 경우는 1986년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곡물가격의 급등과 재고수준의 계속적인 감소로 특징지워지는 현재의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곡물수급전망에 있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곡물등급의 배경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숨어 있다.

먼저, 1995년의 이상기후로 인해 미국과 EU 등 주요 농산물수출 선진국들에서 생산과 재고량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곡물의 공급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둘째, 최대 밀생산국인 미국의 북부평원지역에서 올해 강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96년도 밀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수출보조금의 삭감과 국내농업보조금의 감축을 통한 농산물무역 자유화를 그 주내용으로 하는 UR협상의 타결 및 WTO 체제의 출범이 농산물 수출국 뿐만 아니라 여타 개도국 및 식량수입국의 생산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198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곡물의 순수출국이었던 중국, 러시아 등이 기상재해, 국내생산여건의 악화, 인구증가 및 소득상승에 따른 국내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순곡물수입국으로 변모했다. 통계자료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1994년까지 평균적으로 연간 약 1,000만톤의 옥수수를 수출하였으나, 소득증가로 인해 육류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1995년도에 450만톤, 1996년도 1/4분기에 200만톤의 옥수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향후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전망

향후 국제곡물시장의 추이에 대한 전망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2.1. 단기전망

향후 국제곡물시장의 상황에 대한 단기적 예상에 있어서는 가격등귀 요인과 가격안정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 향후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먼저, 국제곡물상들이 곡물수급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미국의 주요 밀생산지역의 강우량 부족으로 인해 1995년도 가을파종이 지연되어 1996년도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중국에서 축산물의 수요증가로 인해 사료용곡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제곡물가격을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곡물생산국에서 생산조정계획의 폐지 또는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96년 농업법(Farm Bill)에서 휴경제도를 철폐하고 농민의 생산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으며, EU도 휴경지 비율을 12%에서 10%로 줄인 바 있다. 결국, 미국과 EU의 이런 조치들은 곡물생산면적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 Council)는 세계의 밀 재배면적이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미농무성의 경우도 역시 미국의 옥수수 재배면적이 1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 인도 등에서 곡물작황이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본다면, 일기가 순조로울 경우 1996년도 곡물수확기(미국 겨울밀 6월말, 옥수수, 콩의 경우는 9월말)부터 곡물수급사정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확기까지는 각국의 곡물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곡물가격은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2. 장기전망

국제곡물시장의 장기수급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오랫동안 대립해 오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은 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곡물수출국, WTO, OECD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면, 비관적인 전망은 곡물수입국, FAO, World Watch 연구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주요한 대립기조는, 기본적으로 인구증가, 소득증가에 따른 맬더스적 식량수요증가가 생산기술의 향상에 따라 생산량의 전체적인 증가와 무역자유화에 따른 시장메카니즘에 근거한 자동적인 수급조절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현재의 세계적인 곡물가격 파동을 이상기후 등의 요인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내에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 곡물수요가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은 신기술 등을 도입하여 녹색혁명을 이룩함으로써 급증하는 세계식량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최근에 과학기술이 고도로 진보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을 식량작물 생산분야에 도입할 경우 공장제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한 대규모 식량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식품 가공기술과 저장기술 등이 향상됨으로 인해 농산물의 특성인 공급의 불안정성을 감소시켜 농산

물의 수급조절이 더욱 개선될 것이다. 더욱이, 낙관론자들은 최근에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무역에 있어서도 비교우위에 근거한 자유무역이 더욱 확대되고, 이로 인해 식량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관론자들은, 현 과학수준하에서 세계 곡물수급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하에서 비교우위에 근거한 자유무역을 맹신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지구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이르러 기술 진보에 의한 농업 생산성증대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토지 및 수자원의 양적인 제약과 질적인 저하, 그리고 비료 및 농약 등의 화학제품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생산성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제3세계 국가의 인구가 급속히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 인구증가율이 식량생산증가율을 추월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득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 식용 및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요가 팽창하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식량공급이 식량수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세계 전체의 주식용 곡물의 1인당 생산량은 17%가 증가한 반면, 향후 20년간에 세계의 인구증가율은 3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비교우위에 근거한 무역자유화가 관련된 교역당사국 모두에서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량위기가 발생하여 식량수출국들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들을 취할 경우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방안은 아직까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70년대 초에 미국은 자국의 국내사료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콩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아프카니스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980. 6~81.4월간에 소련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로서 곡물수출금지조치를 발동하였다. 베트남은 1995년 5월에 국내 쌀가격통제를 목적으로 쌀수출을 금지하였으며, EU는 1995년에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밀과 보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한바 있다.

1.3. 정부의 추진대책

1.3.1. 단기대책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단기대책은 첫째, 국제곡물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장대응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곡물시장 기조에 대비하여 정부는 우선 위험을 분산시키고 구매조건을 유리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국, 구매방법과 시기, 수입곡종을 다양화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각국의 주요 곡물 식부면적, 기상조건, 선물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국내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구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수입관세 및 수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관련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27자로 정부는

곡물 및 조사료를 수입하는데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인하하였다. 즉, 사료용 옥수수, 호밀 등의 수입관세를 0%로 하고, 제분용 밀, 가공용 대두, 옥수수 등의 관세를 1%로 인하하였다. 또한 재정경제원과 협조하여 축산배합사료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을 추진중에 있다.

1.3.2. 중장기대책

정부는 우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제 곡물파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곡물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상시적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국제수급동향과 외국의 비축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비축시설 및 비축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번째로는 새로운 형태의 해외농업투자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과거 70년대의 정부주도의 농업이민방식에 의한 농업개발사례와 80년대 민간자본에 의한 직접투자, 즉 고합, 대륙개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방농업개발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네번째로, 정부는 현재 5~7개국으로 한정되어 있는 곡물수입국을 위험분산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OECD,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체에 국내생산을 통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OECD, FAO, APEC 등 국제회의에서 수출국 중심의 무역 및 식량안보논리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FAO 세계식량정상회담(World Food Summit, 96. 11. 13~17, 로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2. 해외 농업투자 지원방안

2.1. 해외농업투자 지원방안의 검토배경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WTO체제의 출범 및 수입자유화로 인해 콩, 옥수수 등의 곡물수입이 증가하고 특히 통일을 대비할 경우 곡물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입의존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농업분야의 해외투자 자유화와 아울러 국내기업의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비판시각이 완화됨으로써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해외진출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계식량 수급불안정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세계곡물시장을 생산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국내수요증가 등 세계곡물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지면적의 감소,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으로 곡물생산능력 증대에는 일정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식량수급 상황이 어려울 경우 해외농업 투자자들의 경영측면에도 도움을 주면서 국내에서 부족한 곡물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과거의 해외농업투자경험, 현재의 상황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과거의 해외농업개발 경험

2.2.1. 1980년대 이전

1980년대 이전의 해외농업개발은 크게 정부주도에 의한 추진방식과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주도에 의한 추진방식으로는 남미의 농장(5개소)개발을 들 수 있다. 1968~81년의 기간동안 아르헨티나의 3개 지역, 칠레의 1개 지역, 파라과이의 1개 지역 등 모두 25,304ha를 매입(지가 : 459만$)하였는데 이 지역에 우리나라 국민 52세대가 농업이민으로 진출하였으나 대부분(44세대)이 농업생산 및 경영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위의 5개 농장중 2개(야따마우까, 떼노)를 제외하고는 매입농장을 민간에 매각하고 있거나 이미 매각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주도에 의한 추진방식이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농업투자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당초부터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으며, 현지 정부의 이주 불허정책으로 해외농업개발이 중단된 곳(테노)도 있었다. 또한 농업이민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했으나 비적격자 선발로 인해 사업의 중도포기 및 이탈 등이 발생하여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위의 5개 농장의 경우는 개발시도 후 얼마가지 못해 중단되고 말았으며 이에 대해 국내 대기업에 의한 농장 재활용 추진 등 개발시도가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한편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방식으로는 (주)선경의 옥수수 농장개발을 꼽을 수 있다. 선경은 1981~83년 기간동안 미국의 워싱턴주의 3,300ha에 농장임대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민간기업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정부는 국제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약간의 가격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옥수수의 생산 이후 국제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익성 보장이 어려워 반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산물저장고(Terminal elevator) 등 수송시설이 확보되지 못했고, 또한 대기업이 해외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비난과 외화유출 시비 등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2.2.2. 1990년대

1990년대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1980년대와는 달리 민간에 의한 해외투자가 장려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투자 제한이 완화되었다. 또한 수입자유화폭이 확대되고 특별한 구매상의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국내기업들사이에서 생겨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민간주도의 해외농업개발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륙개발의 삼강평원 개발

대륙개발의 경우 1994~98년 기간 동안 38,000ha의 농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1992년부터 70년 동안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륙개발은 1994년에 농업개발에 착수하여 1995년에 콩 2,222톤(1,010ha)과 밀 1,300톤(520ha)을 생산하여 현지에서 판매하였으며 50%의 수출권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비 측면에서는 콩이 톤당 $87달러, 밀의경우는 톤당 $51달러이며 수

송비 및 기타 경비는 톤당 $40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나. 고합물산의 러시아 아무르주 및 연해주 농업투자

고합물산의 경우 해외농업투자는 1995~99년 한·러 합작투자로 자본금 2500만달러로 시작되었다. 합작투자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측은 구소련 시대의 국영농장을 현물출자하고 고합측은 이에 상응한 현금을 출자하는 형태였다. 그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1995년에 2,000톤(2,000ha)을 생산하였는데 이중 800톤 정도를 국내 대두유 가공회사에 납품을 시도했으나 착유율이 저조하여 포기하고 말았다.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삼성그룹에서 호주에 목장(1,730만평)의 매입을 추진하여 1996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한일그룹과 (주)세모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다.

2.3. 향후 추진방안 검토

2.3.1. 해외농업개발의 기본적 추진방향

향후 해외농업개발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개발보다는 수익성에 바탕을 둔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즉 정부는 민간기업이 진출할 경우, 애로사항 예컨대, 투자환경에 관한 정보, 토양, 지질조사 등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2.3.2. 추진주체별 검토

민간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는 크게 일반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수요자가 주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기업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지역과 작목을 선택하여 진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조직·정보·자본·경영기술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대기업의 경우 농업개발로 시작하여 1차산품의 가공업 등 관련업종에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현지 생산물의 국내 반입 후 판매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사료가공업체는 가격·품질면에서 유리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두번째로 축협 등 실수요자가 사료곡물을 재배·수입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축협의 경우를 예로 들면, 초지생산, 사료가공 및 국내공급 등에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에 의한 직접 개발이므로 국내반입시에 판매상의 애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축협은 1993년에 중국 흑룡강성, 길림성 등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2.3.3. 해외농업 개발대상 가능지역

가. 북방권(중국, 러시아 : 옥수수, 콩, 등)

북방권의 경우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수송거리(연해주 자루비노항에서 부산까지 2,500㎞(42시간))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판매상의 유리점이 있고, 수확 후 처리기술이 거의 불필요하다.

나. 동남아권(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 옥수수, 콩)

메콩강 개발사업에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측에서 현지조사사업 추진 중이며 동사업과 연계하여 민간기업의 농업개발에 대한 참여도 가능하다. 베트남의 야수프 다목적사업(1997~2001)의 경우를 보면, 야수프강유역 15천ha에 댐을 건설하고, 농업용수 개발(4천만$: 베트남 2천만, 차관지원 2천만)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다. 남미권(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 조사료)

남미권중 아르헨티나는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토의 대부분이 평원이기 때문에 목초 개발여건이 좋다.

라. 오세아니아권(호주, 뉴질랜드 : 축산농장)

오세아니아권에서 해외농업개발 투자대상지역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다. 이 지역의 경우 국토가 넓고 청정환경 등 목축업에 유리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삼성물산 측에서는 1996년 6월에 호주의 시드니 북서쪽에 목장(1,730만평)을 구입하여 목축업을 추진하고 있다.

2.4. 현실적인 제약여건

해외농업개발투자는 우선 농업생산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즉 농업의 특성상 소요되는 재원이 막대하다는 점,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낮다는 점, 곡물가격·정치적 상황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등에 취약하는 점이다.

예컨대, 콩의 할당관세물량 103만톤 중에서 10% 정도를 해외개발에 의존하는 경우 5만ha~10만ha의 막대한 토지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경직적 관료체제, 항만시설의 불비, 질 낮은 노동력, 경영마인드 미흡 등에 따른 문제가 있다. 또한 농업개발의 참여 결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농업생산상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 이외에도 WTO 협정에 의한 제약도 존재한다. 저율의 현행시장접근(CMA) 물량(TQ)인 경우 기존 수출국들의 수출실적 등을 존중해 주어야 하므로, 개발수입물량을 동물량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수출국의 물량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WTO 차원에서 이의제기의 소지(GATT 23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수출국들이 생산이 부족할 경우 자국소비를 목적으로 수출금지 조치를 하여도 수입국으로서는 WTO상의 제재수단이 없다.

2.5. 정부의 지원방안

해외농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사전현지조사, 금융 및 통상협력 등 민간업체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있다. 정부의 해외농업투자지원의 주요 골자는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진출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현지진출기업(단체)에 대한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5.1.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진출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현지조사 및 기술지원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자연, 토양, 지질 등에 대한 조사지원과 종자·종묘와

작물재배, 농업토목, 농기계, 수확 후 기술, 농장경영 등 부문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공사, 농촌진흥청 등 각계의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토양조사, 생산기반조사, 작물재배 등에 관한 자문과 기술지원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지원('96예산:122백만원)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2.5.2. 현지진출기업(단체)에 대한 지원

현지진출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투자지원은 재정경제원, 외무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95년말 현재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1](EDCF)의 자금조성 규모는 8,139억원인데 이중 농업부문의 자금은 평균상환기간 29년, 연리 2.4%의 조건으로 (주)자도(인도네시아), (주)홍안물산(필리핀) 등의 잠견사 생산시설에 지원되었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자금은 16억원으로써 전체 EDCF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지 0.2%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재정경제원과 협의하여 EDCF의 농업부문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며 농어촌진흥공사의 메콩강개발 조사사업이 종료되면 이와 연계하여 EDCF자금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나, 특히 ASEM 사업의 일환인 민관 메콩강유역 개발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한편 외무부와의 협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농업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나갈 방침으로 있다. 95년 현재 KOICA 자금지원액 4900만달러중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재원은 268달러로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KOICA와 해외농업개발분야에 대한 자금지원확대를 추진하며, KOICA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조사사업을 미얀마 등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이외에도 개발수입물량에 대하여 국내의 사료업계 등 실수요자와의 연계를 주선하고, 개발대상지역별로 자연조건·사회간접시설·법률·제도 등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심기업의 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진출업체가 애로사항을 건의할 경우 개발대상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양국간 상호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투자자들의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외교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같은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는 농업분야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1]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의 관리주체는 재정경제원이며 기금의 운용방침은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재정경제원장관, 위원 : 농림수산부·외무부장관 등 9명)에서 결정된다. 지원대상국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금리, 상환기간에 차등(1.0%, 30년~5.0%, 10년)이 있다.

<참 고 1>

남미지역 해외농장 실태

농장 / 구분	얏다마우까	산하비엘	루 항	떼 노	산뻬드로
소 재 국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면 적(ha)	20,894	2,714	11	185	1,500
구입일자	1978.8	1981.3	1971.3	1980.12	1968.4
토지가($)	2,115,000	1,912,235	18,887	532,900	11,621
소 유 권	KOICA	KOICA (97년말 매각 예정)	매각 ('89.10)	KOICA	KOICA ('97말매각예정)
이주자현황	ㅇ 구입이후 유휴상태 - 일부현지 주민영농	ㅇ 90년대 1세대 잔류		ㅇ 칠레정부 입국불허 ㅇ'88.5 임대중	ㅇ현3세대 영농중
영농조건	ㅇ 염분함유, 일부 영농부적지	양 호	양 호	양 호	영농주거 조건비교적 양호
재배작물		쌀, 옥수수, 채소, 농목 등	채소, 양계, 양돈 등	과수단지, 채소 등	콩, 옥수수, 참깨 등

<참 고 2>

민간업체 해외농업자원 개발현황

▣ 총 괄

(농축산업분야)

개발국가	개발추진업체		활동중인 업체			
	업체수	계획면적	업체수	투자액	계획면적	품목
계	7	244천ha	3	18,205천불	137천ha	
중국	대륙, 윤성, 한성	82	대륙	9,285	38	콩, 밀
러시아	고합, 세모, 한일	156	고합	1,420	93	콩, 밀, 보리, 소사육
호주	삼성	6	삼성	7,500	6	송아지 사육

(산림분야)

개발권	개발국가	진출업체현황						
		업체수	투자 규모	업종규모				
				임지 개발	조림	합판. 단판	제재목 성형재목	칩
계	16개국	28개업체	천불 395,661	천ha 4,144	천ha 243	천㎥/연 689	천㎥/연 528	천㎥/연 550
동북아	중국, 러시아	윤성, 현대 등(7)	84,349	846	50	7	106	256
동남아	말련, 인니,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한국남방개발, 대우등(15)	85,992	835	21	439	203	294
남미권	칠레, 가이아나, 니카라과	선경등(3)	49,437	1,736	52	243	74	-
호주권	뉴질랜드, 호주, 솔로몬, 파푸아뉴기니, 피지	한솔포렘등(7)	171,368	727	120	-	115	-
기타	미국	영창악기(1)	4,515	-	-	-	30	-

▣ 업체별 현황

(농축산업분야)

나라	한국진출업체	개발지역	규모	투자액	개발추진현황
중국	대륙개발	흑룡강성 부금시	38천ha	9,285천불	ㅇ'92착수 이후 94년말 13천ha 개발완료 - '95 생산실적 : 콩 2,222톤(101ha), 밀 1,300톤(1,500ha)
	윤성	내몽고 자치구	37	-	ㅇ95.10 합의서 체결, 2개 현지법인 설립 - 축산(37,000ha) 계약체결, 밀생산 검토
	한성	내몽고 자치구	7	-	ㅇ96 의향서 체결 이후 사업구상단계 - 밀(4,000ha), 목장(2,700ha) 계획
러시아	고합물산	연해주	43	600	ㅇ95.7 프림코합작회사 설립(50:50) - 콩생산, 소사육 계획 - '95 생산실적 : 콩 800톤
		아무르주	50	820	ㅇ95.3 코러스 합작회사 설립(50:50) - 콩, 밀, 보리생산, 소사육 병행
	세모	연해주	53	-	ㅇ95.11 1차 계약서 체결(러시아 대통령 선거후 적극 추진) - 미곡, 축산, 양어 등
	한일합섬	연해주	10	-	ㅇ95.7 의향서 체결(러시아 대통령 선거후 사업재검토) - 한우, 축산
호주	삼성	뉴사우스 웨일즈주	6	7,500	ㅇ축산국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ㅇ96.5 삼성의 미국현지법인이 호주에 자회사설립 - 목장구입 및 송아지 사육

(산림분야)

나 라	투자업체	진출년도	투자규모	업 종 규 모
			천불	
중국	한화자원	95	750	칩 120천㎥
	한국남방개발	94	3,500	성형목재 4천㎥
	윤성	96	48,299	조림 50천ha
	영창악기	96	9,800	합판, 칩등 41.3천㎥
	이건산업	96	4,500	성형목재등 7.7천㎥
러시아	현대자원개발	90	16,000	임지개발 837천ha, 칩 106천㎥(계획 1백만㎥)
	한러산업	94	1,500	임지개발 9천ha, 제재목 90천㎥
인도네시아	한국남방개발	68	46,405천불	임지개발 440천ha, 조림 5,600ha등
	선경	80	235	합판 35천㎥
	유원건설	83	12,500	임지개발 395천ha, 합판, 제재목 73천㎥
	동화기업등 4개업체	70~91	920	합판, 제재목등 186천㎥
말레이지아	동영물산등 4개업체	83~91	5,470	단판, 제재목등 106천㎥
베트남	세양코스모	93	2,183	조림15천ha, 칩 294천㎥
	대동주택선설	93	4,000	합판 13천ha
캄보디아	동화협상	92	1,965	제재목 24천㎥
미얀마	대우	91	4,034	합판 22천㎥
가이아나	선경	92	3,600	임지개발 1,670, 합판등 193천㎥
칠레	이건건설	93	1,900	단판 24천㎥
니카라과	금경	95	43,937	임지개발 66천ha, 조림 52천ha 합판등 100천㎥
호주	한솔포렘	93	17,853	조림 10천ha
뉴질랜드	한솔포렘	96	31,520	조림 10천ha
솔로몬	이건산업	88	32,500	임지개발 365천ha, 조림 40천ha 등
파퓨아뉴기니	코드파(주)등 3개업체	81~96	88,895	임지개발 345천ha, 제재목 92천㎥
피지	우일퍼시픽	89	600	임지개발 17천ha등
미국	영창악기	91	4,515	제재목 30천㎥